

신체상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남녀 중학생의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Adolescents' Body Image and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on the Alienation of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경화**

Dep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 of Daegu
Professor : Kim, Kyong-Hw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adolescents' body image and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on the alienation of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253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 18.0 using Cronbach's α ,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and stepwise regression.

The findings showed that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the father was the strongest factor in explaining the alienation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second strongest factor was the middle school student's open communication with the mother, and the third strongest factor was th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physical health. Unlike male students, open communication with the father was the strongest factor in explaining the alienation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the mother was the second strongest factor. Perception of physical appearance was the third strongest, and perception of physical health was the fourth strongest facto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alienation of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주요어(Key Words) : 소외감(alienation), 남녀 중학생(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신체상(body image), 부모와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with parents)

I. 서론

청소년기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탐색하며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왜 존재하며, 자신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자신의 존재가치, 자신의 삶의 목표와 의미 등을 찾아가면서 사회구조 내로 통합되게 된다. 즉 의미 있고 통합된 규범체계와 정서적으로 중요한 타인들과의 적절한 상호작용과정을 통하여 통합된 정체성 형성이 이루어진다(Breger, 1998). 그러나 적절한 규범체계의 제공 및 상호작용일 결여될 때 청소년들은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소외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자아정체성 형성이라는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실패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치와 유용성을 명확하게 지각하기 못하며, 좌절

* 이 논문은 2012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주저자·교신저자 : 김경화(E-mail : khkim@cu.ac.kr)

감과 위축감 뿐 아니라 무력감과 절망감을 경험하게 된다. 정체성 형성과 사회화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야기된 이러한 심리적 상태가 소외상태이며(박성수, 1985; Breger, 1999), 자기 탐색과정, 즉 자아정체성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청소년기는 소외감의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는 시기라 하겠다.

국내·외의 연구에서 소외감은 여러 유형의 문제행동 및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외상태의 청소년은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및 비행을 경험하며(Brofenbrenner, 1976; Moyer & Motta, 1982), 음주, 흡연, 약물 남용과 같은 건강위험행동을 보다 많이 하며(Thomas, 1997; Lee & Kim, 2004), 비행 및 우울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nkel, Bailey & Josef, 1989; Young, 1989). 소외감이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과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할 때, 청소년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소외감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중학생 시기가 가장 급격한 소외 신체적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우울, 불안장애, 자살 등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Lee et al., 2007).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및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소외감의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중학생의 사회심리적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청소년의 소외감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 중의 하나로 신체상을 고려하고자 한다.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10대 청소년의 83.3%는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였으며(Kim, 1992),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신의 신체상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Polce-Lynch et al., 1988; Jang & Song, 2004; Lee, 2004; Cho, 2009; Lee & Min, 2009).

청소년의 신체상에 관련한 선행 연구는 신체상 지각이 개인의 자존감, 사회성을 비롯하여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는 청소년은 자기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자기 존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며,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 수준 및 타인과의 협동성과 이해심이 낮으며,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Kuh & Lee, 1994; Jang & Song, 2004; Cho, 2009; Lee & Min, 2009). 신체상 지각이 자존감, 대인

관계 수준, 학교적응, 우울감 등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신체상 지각이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및 태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진 청소년에게서 확인된 낮은 자아가치감, 낮은 사회성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소외상태의 청소년이 보여주는 무력감, 무기력, 사회적 고립의 상태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신체상을 하위영역으로 세분하여 소외감과 관련된 신체상 요소가 무엇인지 규명한다면 청소년의 소외감 감소에 기여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신체상을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영향력을 분석한 선행 연구(Lee, & Min, 2009)에서 외모 관련 신체상 하위영역과 건강 관련 신체상 하위영역이 청소년기의 자아가치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체상의 하위 영역들이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신체상을 외모신체상과 건강신체상으로 세분하여 남녀 중학생의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소외감 지각에 미치는 영향변인으로 신체상이라는 개인적 변인 뿐 아니라 부모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빈도가 감소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추구하게 되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iels, 1981; Parkers, 1991; 유안진, 1995).

청소년이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 의미를 갖지 못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어 있다는 지각은 가장 가까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부모의 태도나 관계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모가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자신의 삶이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보다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 관계도 긍정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소외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부모 변인과 청소년의 소외감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ng & Yoo, 2000; Lee, 2004; Min, Lee & Kim, 2008). Kang and Yoo(2000)는 부모자녀 간 정서적 친밀감이 대학생의 소외감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Lee(2004)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고등학생의 소외감을 분석하였으며, Min, Lee, and Kim(2008)은 모-자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중고등학생의 소외감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 및 사회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부-자녀 관계와 모-자녀 관계의 영향력이 상이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Lee & Kim, 1989; Kim & Kim, 2001).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등 부모 변인

이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01; Min, Lee & Lee, 2004; Lober & Stouthamer-Loeber,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부-자녀 의사소통과 모-자녀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구분하고,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을 각기 파악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소외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버지의 영향력과 어머니의 영향력을 구분하지 않거나(Lee, 2001; Kim, 2011),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Kang & Yoo, 2000; Lee, 2001; Min, 2008; Min, Lee & Kim, 2008) 부모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소득이 소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소득수준 또한 고려하고자 한다(Lee, 2004; Lee & Kim, 2004; Min, 2008; Cho & Lee, 2010).

본 연구는 신체상 지각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남녀 중학생의 소외감 지각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소외감에 관련된 변인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신체상을 외모신체상과 건강신체상으로 구분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부-자녀 개방형 및 문제형 의사소통, 모-자녀 개방형 및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여, 이들 변인들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소외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의 소외감 감소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상기 기술한 연구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남녀 중학생의 소외감, 건강신체상 및 외모 신체상, 부/모와의 개방형 및 문제형 의사소통은 성별 간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남녀 중학생의 소외감은 건강신체상 및 외모 신체상, 부/모와의 개방형 및 문제형 의사소통,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남녀 중학생의 소외감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소외감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의 형성이라는 발달적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소외감이란 사회규범 체계의 혼란 및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여로 인해 정체성 형성과정 과정이 교란되어 나타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박성수, 1985; Breger, 1988). 청소년기의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시기는 집단에의 소속에 대한 욕구가 크며 집단에의 소속을 통해 자기정체감을 파악하려는 시기이다(Lee, 2004). 따라서 이러한 욕구가 좌절될 때 소속감이 결여되고 정체성 형성에 장애가 생기게 되어 청소년들은 심리적 소외상태에 쉽게 빠질 수 있다(Kenistone, 1965).

Seeman(1972)은 소외상태의 청소년이 갖는 특성을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낮으며, 외부의 힘이나 운명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무력감, 둘째 개인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무의미, 셋째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는 규범상실, 넷째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거부된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고립, 다섯째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나 이상을 거부하는 문화적 유리, 여섯째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자기유리의 상태이다. 즉 소외상태의 청소년은 자신감이 없으며 무기력하고, 사회적 규범이나 사회관계로부터 유리되어 있다고 인식하며, 자신의 일에서 만족감이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청소년기는 친구나 선후배 등 자신이 속한 집단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예전에 비해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부모와의 관계는 일관성 있게 유지되며, 적절한 사회적 규범과 행위를 습득하는데 있어 부모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Niels, 1981; Patterson & Dishion, 1985; Parkers, 1991; 유안진, 1995).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며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청소년들은 적절한 사회적 규범의 내면화와 정체성 형성에 실패하여 소외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소외감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소외감 인식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im(2011), Min, Lee, and Kim(2008), Lee(2004)은 부모의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소외감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Kang and Yoo(2000)는 부모 자녀 간 정서적 친밀도가 대학생의 소외감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소외감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성별, 학년, 소득에 따른 소외감의 차이가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Lee and Kim(2004)의 연구에서 무의미와 규범상실 하위영역이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4)의 연구에서는 성별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소외감의 차이 연구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라서는 청소년의 소외감 지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Lee & Kim, 2004).

소득에 따른 소외감의 차이 연구를 살펴보면, Lee(2004),

Min(2008), Cho and Lee(2010)의 연구에서 소외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외감을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ee and Kim(2004)의 연구에서는 무의미와 규범 상실의 하위 영역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신체상

신체상(body image)은 자신의 신체적 모습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심상 및 이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Luckman & Sorensen, 1974). 즉 개인이 자신의 신체 기능 및 외모에 대한 주관적 지각에 근거한 평가를 의미한다.

신체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수치에 근거한 평가와 주관적 지각에 의한 평가로 구분될 수 있다(Cash & Brown, 1987). 신체에 대한 객관적 수치와 주관적 지각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haung(1998)에 의하면 중학교 여학생 중 과체중 이상 학생은 19%인데 비해,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학생은 65.1%에 달하였으며, 여학생들은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며 더 날씬한 몸매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자시의 체형을 실제보다 확대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신체에 대한 객관적 수치보다 주관적 평가가 인간의 심리 및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학생들은 실제 체형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신체 지각에 의거하여 체중조절을 하고 있었으며(Chaung, 1998), 신체적 기능이나 능력보다 외모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dams, 1977). 선행연구의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체에 대한 객관적 측정에 근거한 평가보다 주관적 지각에 의한 신체상을 근거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국내·외의 연구에서 신체상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ee and Min(2009), Jang and Song(2004), Polce-Lynch et al.(1988)의 연구에서 외모 신체상에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신의 외모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거나 불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영미(2004)의 연구에서 자신의 신체를 뚱뚱하다고 지각하는 경우와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좀 더 많이 나타나, 여학생의 신체지각이 좀 더 부정적임을 보여주었다. Cho(2009)의 연구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은 외모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신체에 대한 주관적 지각은 개인의 자신에 대한 인식에 주요한 구성요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은 몸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은연중에 수용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지각하게 되며, 지각된 신

체상은 자아에 대한 수용과 자신의 존재가치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신체상 지각 및 외모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Jang & Song, 2004; Im, 2007; Cho, 2009; Hwang 2009; Lee & Min, 2009), 사회성 및 대인관계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Im, 2007; Kuh & Lee, 1994). 선행연구에서 신체상은 우울, 공격성, 불안증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Han, 2003; Cho, 2009; Song, 2010).

신체상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차가 보고되었다. Lee and Min(2009), Cho(2009), Polce-Lynch et al.(1988)은 신체상 및 외모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차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Cho(2009)와 Polce-Lynch et al.(1988)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모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더 많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Lee and Min(2009)의 연구는 신체상을 외모 지각과 건강 지각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남학생은 외모 관련 신체상과 건강 관련 신체상이 자아가치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나, 여학생은 건강 관련 신체상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상호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를 통해 서로의 정보, 신념, 의견, 태도, 생각 등을 공유하는 행동을 의미하며(Kim & Kim, 1994), 상호 간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는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선택되는 메시지의 종류, 메시지의 전달방법 및 피드백의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Barnes and Olson(1982)은 가족 간 의사소통의 유형을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라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공감, 경청, 지지적 발언 등의 메시지가 사용되는 의사소통 유형으로,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이며 기능적인 가정환경을 의미한다. 반면 문제형 의사소통은 청소년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발언이나 이중구속, 비난적 표현을 많이 경험하는 의사소통 유형으로, 역기능적이며, 부정적인 가정환경을 나타낸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및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혹은 부모와의 관계는 본 연구의 주제인 소외감(Kang & Yoo, 2000; Lee, 2004; Min, Lee & Kim, 2008; Kim, 2011)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자살생각(Choi, 2010; Lee, Choi & Kong, 2011), 진로장벽 지각(Kim, 2011; McWhirter, 1977), 우울 및 비행

(김영희 · 안상미, 2008; Choi, 2010; Kim, 2001), 과잉과 공격행동(Min, Lee & Lee, 2004) 등과 같은 사회부적응 및 문제행동과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Kim & Kim, 2001), 자아개념(Kong, Lee & Lee, 2005), 자아존중감 형성(Kim, 2001; Kim & Lee, 2005) 등 긍정적인 발달과정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머니와 청소년의 의사소통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 and Jeon(2009), Lee, Park, and Lee(19994), Lee and Kim(1989)은 딸이 아들에 비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더 만족하거나, 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반면, 모-자녀의 의사소통에 남녀 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 Lee, Park, and Lee(1994)는 어머니와의 부정적인 대화는 남학생과 여학생에 차이가 있으나, 긍정적인 대화는 남녀 간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아버지와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 and Kim(2001)은 아버지와 의사소통에 남녀 간 차이가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아버지와 개방형 및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반면, Kim and Jeon(2009)은 아버지와 의사소통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역기능적 가족환경이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in, Lee, and Lee(2004)의 연구에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과잉과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차이가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Kim(2001)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남학생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여학생의 반사회적 행동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대구 · 경북지역 소재의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중학생은 253명으로 남학생이 128명(50.6%), 여학생이 125명(49.4%)이었다. 조사대상 중학생 가정의 월평균수입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만원 미만인 64명(29.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71명(32.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51명(23.2%), 400만원 이상이 33명(15.4%)이었다.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가 15명(6.3%), 고졸이 130명(54.9%), 대졸 이상이 92명(38.9%)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가 20명(8.4%), 고졸이 159명(66.5%), 대졸 이상이 60명(25.1%)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30대가 9명(3.6%), 40대가 201명(90.1%), 50대 이상이 16명(6.3%)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45명(17.8%), 40대가 201명(79.4%), 50대 이상이 7명(2.8%)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 of Sampes

Variables	Category	n(%)
Gender	male	128(50.6)
	female	125(49.4)
Income	under 2,000,000	64(29.1)
	2,000,000 ~ under 3,000,000	71(32.3)
	3,000,000 ~ under 4,000,000	51(23.2)
	over 4,000,000	33(15.4)
School Achievement of Father	elementary & middle school	15(6.3)
	high school	130(54.9)
	university & graduate school	92(38.9)
School Achievement of Mother	elementary & middle school	20(8.4)
	high school	159(66.5)
	university & graduate school	60(25.1)
Age of Father	30s	9(3.6)
	40s	201(90.1)
	50s & 60&	16(6.3)
Age of Mother	30s	45(17.8)
	40s	201(79.4)
	50s & 60&	7(2.8)

2. 연구척도

1) 소외감 척도

소외감을 측정하는 척도는 Seeman(1972 & 1975)의 소외 개념을 사용하여 Kang and Yoo(2000)가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개발된 척도는 청소년복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소외감 척도는 무력감, 무의미, 규범상실, 사회적 고립, 자기 유리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영역별 문항을 살펴보면 무력감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내 인생의 결과는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운명에 달려있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의미는 '공허하고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자주 있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따분할 뿐이다' 등의 10문항, 규범 상실은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이 나쁘더라도 문제될 것 없다' 등의 10문항, 사회적 고립은 '속이 상할 때 하소연 할 사람이 없다',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일이 별로 없다' 등의 10문항, 자기유리는 '나 자신에게 만족을 느끼지 않는다',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기쁨이라고는 없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소외감 척도는 총 50문항이다.

각 문항은 '그렇다(1점)'에서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측정된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소외감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많은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신체상 척도

신체상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Mendelson and White (1982)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한 Cho(1992)의 도구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개발된 척도는 청소년복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신체상 척도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는 외모신체상(6문항)과 자신의 신체 건강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는 건강신체상(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9문항이다. 외모 신체상은 자신의 얼굴생김새와 신체 비만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관련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건강신체상은 질병에 대한 강인함과 신체 건강에 대한 지각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늘 그러는 편이다(5점)'의 5점 리커트로 측정되었다.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외모신체상이 .80, 건강신체상이 .76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외모와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는 Barnes and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용 설문지(Adolescent

Form)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개발된 척도는 청소년복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는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척도 10문항, 부-자녀 문제형 의사소통 척도 10문항,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척도 10문항,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10문항으로 총 40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늘 그러는 편이다(5점)'의 5점 리커트로 측정되었다. 개방형 의사소통 척도는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며 긍정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문제형 의사소통 척도는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폐쇄적이며 역기능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89, 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79, 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93, 모와의 폐쇄형 의사소통이 .80점이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조사는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는 6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2010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각 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혹은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배부된 질문지는 응답 후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본 연구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고 그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하기 때문에 부나 모의 부재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구에 적합한 253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alpha < .05$ 에서 검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소외감, 신체상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신체상,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따른 남녀 중학생의 소외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남녀 중학생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계수 및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결 과

1. 성별에 따른 소외감, 신체상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차이

성별에 따라 남녀 중학생의 소외감, 외모신체상, 건강신체상,

Table 2. Adolescents' Alienation, Body Image, Communication with Parents according to Gender

		male	female	t
		M(SD)	M(SD)	
adolescents' alienation	powerlessness	17.80(4.74)	18.35(4.84)	-.91
	meaninglessness	17.88(5.12)	18.62(5.76)	-1.06
	normlessness	16.47(4.59)	17.08(4.49)	-1.06
	social isolation	18.08(4.54)	17.90(4.71)	.32
	self-estrangement	19.52(4.73)	19.65(4.34)	-.22
	total	89.29(21.01)	90.88(20.56)	-.59
perception of body image	perception of physical appearance	19.65(5.06)	17.76(3.51)	3.39**
	perception of physical health	11.30(2.82)	10.58(2.62)	2.12*
communication with parents	open communication with father	32.31(7.52)	33.04(8.13)	-.73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father	26.21(6.40)	25.93(6.02)	.35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	36.39(7.81)	39.37(7.64)	-3.04**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mother	25.17(6.10)	25.85(6.11)	-.89

* $p < .05$, ** $p < .01$

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Table 2> 참조).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외감 지각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59$). 외모신체상과 건강신체상은 성별에 따라 각기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외모신체상($t=3.39$, $p < .01$) 및 건강신체상($t=2.12$, $p < .05$)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사소통의 성별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만이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와 더욱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3.04$, $p < .01$). 부와의 개방형($t=-.73$), 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t=.35$) 및 모와의 문제형 의사소통($t=-.89$)은 남녀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상, 부모와의 의사소통, 소득에 따른 남녀 중학생의 소외감 지각의 차이

남학생의 신체상 지각, 부모와의 의사소통, 소득에 따라 소외감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Table 3> 참조). 분석을 위해 외모신체상, 건강신체상, 부-자녀 개방형 및 문제형 의사소통, 모-자녀 개방형 및 문제형 의사소통을 상, 중, 하 3개의 하위집단으로 각기 구분하였다. 정상분포곡선에서 평균±(0.5X표준편차)에 해당하는 상·하위 30%를 기준으로 집단구분을 실시하였다(차배근, 1982; 166).

신체상에 따른 남학생의 소외감 지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신체상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소외감 지각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나($F=4.09$, $p < .05$), 외모신체상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2.14$). 남학생은 자신의 신체가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소외감을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소외감 지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소외감 지각은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F=6.53$, $p < .01$), 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F=6.01$, $p < .01$),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F=7.99$, $p < .01$) 및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F=8.43$,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 수준이 낮을수록 남학생은 소외감을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소외감 지각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지각하는 소외감이 신체상, 부모와의 의사소통,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외모 신체상, 건강신체상, 부-자녀 개방형 및 문제형 의사소통, 모-자녀 개방형 및 문제형 의사소통 정도를 평균±(0.5X표준편차)에 해당하는 상·하위 약 30%를 기준으로 상, 중, 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신체상에 따른 여학생의 소외감 지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외모신체상($F=7.19$, $p < .01$) 및 건강신체상($F=3.49$, $p < .05$)에 따라 여학생의 소외감 지각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학생은 자신의 외모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자신의 신체가 보다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소외감을 보다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여학생의 소외감 지각은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F=8.29$, $p < .01$), 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F=6.01$, $p < .01$),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F=7.99$, $p < .01$) 및 어머니

Table 3. Male Students' Alienation according to Body Image,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Income

			male students' alienation M(SD)	scheffé grouping	F-value
perception of body image	perception of physical appearance	low	95.38(19.63)		2.14
		middle	90.49(21.54)		
		high	85.18(20.91)		
	perception of physical health	low	96.84(18.19)	a	4.09*
		middle	90.67(19.62)	ab	
		high	83.56(22.78)	b	
communication with parents	open communication with father	low	93.32(19.77)	a	6.53**
		middle	94.61(20.80)	ab	
		high	79.32(19.40)	b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father	low	60.93(19.87)	a	6.01**
		middle	91.70(20.29)	ab	
		high	95.27(20.40)	b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	low	96.92(20.78)	a	7.99**	
	middle	88.75(20.19)	ab		
	high	78.29(17.43)	b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mother	low	78.79(18.64)	a	8.43***	
	middle	93.00(18.92)	b		
	high	96.19(22.12)	b		
income	low	90.80(19.33)		.14	
	middle	89.86(21.21)			
	high	88.11(22.30)			

* $p < .05$, ** $p < .01$, *** $p < .001$

a, b: 같은 문자 간에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

Table 4. Female Students' Alienation according to Body Image,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Income

			female students' alienation M(SD)	scheffé grouping	F-value
perception of body image	perception of physical appearance	low	96.09(18.48)	a	7.19**
		middle	90.26(20.62)	ab	
		high	84.10(22.01)	b	
	perception of physical health	low	99.29(20.34)	a	3.49*
		middle	90.65(19.86)	ab	
		high	80.08(17.76)	b	
communication with parents	open communication with father	low	100.54(20.44)	a	8.29**
		middle	88.97(19.32)	b	
		high	83.33(18.32)	b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father	low	83.17(16.54)	a	6.01**
		middle	90.38(19.24)	ab	
		high	99.81(22.27)	b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	low	101.63(20.42)	a	7.99**	
	middle	89.90(18.86)	b		
	high	83.58(18.69)	b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mother	low	82.32(18.60)	a	7.08**	
	middle	88.64(17.80)	ab		
	high	98.85(20.76)	b		
income	low	98.14(22.57)	a	4.09*	
	middle	85.48(19.55)	b		
	high	88.19(15.91)	ab		

* $p < .05$, ** $p < .01$

a, b: 같은 문자 간에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

Table 5. Stepwise Regression Predicting Adolescents' Alienation

Independent Variables		β	t	R ²	Cum. R ²
male students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father	.30	4.54***	.16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	-.29	-4.42***	.07	.23
	perception of physical health	-.18	-2.86**	.03	.26
female students	open communication with father	-.32	-5.04***	.14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mother	.25	3.91***	.06	.20
	perception of physical appearance	-.16	-2.48*	.02	.22
	perception of physical health	-.14	-2.17*	.01	.23

* $p < .05$, ** $p < .01$, *** $p < .001$

와의 문제형 의사소통($F=7.08, p < .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및 어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아버지 및 어머니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여자 중학생은 소외감을 적게 경험하고 있었다.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여학생의 소외감 지각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많은 소외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F=4.09, p < .05$).

3. 남녀 중학생의 소외감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남녀 중학생의 소외감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이 상대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참조). 남학생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남학생의 소외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30, p < .001$), 그 다음으로 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beta=-.29, p < .001$), 건강신체상이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되었다($\beta=-.18, p < .01$). 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건강신체상은 남학생의 소외감을 26%($R^2=.26$)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와의 개방형 문제소통, 모와의 문제형 의사소통, 외모신체상 및 소득수준은 남학생의 소외감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학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여학생의 소외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beta=-.32, p < .001$). 그 다음 모와의 문제형 의사소통($\beta=.25, p < .001$), 외모신체상($\beta=.16, p < .05$), 건강신체상($\beta=-.14, p < .05$)의 순으로 여학생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모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외모신체상과 건강신체상은 여학생의 소외감을 23%($R^2=.23$)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및 소득수준은 여학생의 소외감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중학교의 25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남자 중학생의 소외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제시되었으며, 그 다음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건강신체상의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소외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 외모신체상, 건강신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수준은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와 더욱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표현적이며, 동성인 어머니와 더욱 친밀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딸이 어머니와 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Lee and Kim(1989)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둘째, 신체상 지각에 있어 성별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신이 외모 및 신체건강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신의 외모와 신체를 보다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사회에 팽배한 외모지상주의의 사회적 압력이 여학생에게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에 비해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야기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으나,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여전히 여학생에게 보다 강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보다 부정적인 신체상을 지각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의 신체지각이 남학생에 비해 부정적이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보다 많은 외모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Jang & Song, 2004; Lee, 2004; Cho, 2009; Lee & Min, 2009)와 유사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남학생 및 여학생의 소외감 지각은 아버지와의 개방형, 문제형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개방형, 문제형 의사소통 각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녀 중학생이 소외감을 지각하는데 있어 부모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의 소외감에 대한 Kim(2011), Min, Lee, and Kim(2008), Lee(2004)의 연구 및 대학생의 소외감 연구인 Kang and Yoo(200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와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소년기 전 기간을 관통하여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소외감 지각에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남녀 중학생의 소외감 지각이 부모 의사소통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가 남녀 중학생 모두에게 사회심리적 발달과 사회심리적 부적응의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학생은 아동기를 벗어나 청소년기로 진입하여,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며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려는 경향을 갖지만, 부모와의 개방적이며 지지적인 대화는 중학생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정에 유용한 심리사회적 자원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변인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우울, 자살 등 발달적 특성 및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Bae, 2008; An et al., 2009; Jeong, 2010; Jang, Song & Cho, 2011; Lee & Kim, 2011; Song et al., 2011)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외모신체상 및 건강신체상에 따른 남녀 중학생의 심리적 소외감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건강신체상에 따라 심리적 소외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건강신체상 뿐 아니라 외모신체상 또한 유의한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남학생의 소외감 지각이 외모신체상에 따라 차이가 없으며, 건강신체상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에게는 지나치게 외모가 중시되나, 남학생에게는 외모보다는 신체의 강건함(muscularity, McCreay & Sasse, 2000)이 보다 중요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넷째, 소외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건강신체상의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폐쇄형 의사소통, 외모신체상, 건강신체상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있어,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신체상에 비해 소외감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학생의 소외감은 자신이 지각한 신체상에 영향을 받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모두에게 있어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외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되어, 자녀의 발달과정에 아버지가 갖는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아버지가 자녀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회적 경험을 전달하며, 사회적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자녀의 소외감 지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소외감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이 어머니의 영향력보다 크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정체감에 형성과정에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관계가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한 Kim and Kim(2001), Enright et al.(1980)의 연구와 유사하다.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과 신체상의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소외감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의 폐쇄성이 소외감을 야기시키는 요인이지만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에는 성차가 존재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폐쇄적이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어머니와는 개방적이며 친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소외감을 적게 지각하며, 반면 여학생은 아버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어머니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소외감 지각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와 아버지 개방형 및 문제형 의사소통 수준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버지와 의사소통 유형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녀 간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자녀의 심리적 소외감을 발생을 저해하기 위해 아버지는 아들과 부정적이며 비난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딸과는 좀 더 공감적이며 지지적인 표현을 쓰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반면 어머니는 아들과 좀 더 개방적이며 공감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며, 딸과는 부정적이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외에도 신체상 지각이 남녀 중학생의 소외감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에 진입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외모지상주의적인 사회적 풍조가 갖는 억압적이며 허구적인 요소를 파악하게 하고, 자신의 몸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청소년 초기는 급격한 신체의 발달과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기인데 비해 외모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으므로 외모지상주의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에 비해 성숙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외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외모를 강조

하는 루키즘(lookism)적인 사회문화적 압력을 강하게 받아 신체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외모 지각이 소외감이라는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외모와 관련하여 건강한 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소외감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소외감 지각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과 어머니의 영향력을 각기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유형을 2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부-자녀 의사소통과 모-자녀 의사소통이 남녀 중학생의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각각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부모변인의 영향력과 관련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소외감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신체상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체적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자신의 신체변화와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갖는 태도와 인식이 소외감 발생이라는 심리사회적 부적응 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생의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관련한 추후의 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제한된 수의 변인만으로 중학생의 소외감 지각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가 대구·경북지역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전체 중학생에 대한 연구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개인 내·외적 변인을 연구에 포함시켜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가 수행된다면 중학생의 소외감 지각과 극복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며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REFERENCE

김영희·안상미(2008).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 1-31.

박성수(1985). 소외현상과 청소년 문제-학교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교육연합회. **청소년문제연구**, 1, 3-68.

유안진(1995). **인간발달**. 서울: 문음사.

차배근(1982). **사회통계방법**. 서울: 세영사.

한국청소년상담원(2007). **청소년의 자살예방과 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한상철·조아미·박성희(1997). **청소년 심리학**. 양서원.

Adam, G. R.(1977). Physical attractiveness research: toward a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beauty.

Human Development, 20, 217-239.

Ah, Y. A. & Jeong, W. C.(2007). Developmental pathways from parent's risk factors to school viol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3), 29-51.

Ahn, S. Y., Kim, H. J., Yun, S. H. & Cheon, S. M.(2009). The effect of middles school students recognized dysfunctional home to internet addiction - By the medium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12(2), 33-46.

Bae, J.(2008).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related variables, *J. Korean Acad Nurs*, 38(3), 454-464.

Barnes, H.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D. H. Olson, H. I. McCubbin, A. Larsen, M. Muxen & M. Wilson(Eds.). *Family inventories*. MN: Univ. of Minnesota.

Brofenbrenner, U.(1976). The origins of alienation. *Scientific American*, 231, 53-61.

Cash, T. F. & Brown, T. A.(1987). Body image in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A review of the literature. *Behavior Modification*, 11, 487-521.

Cash, T.F., Cash, E.W. & Butters, J.W.(1983). Mirror, mirror, on the wall: Contrast effects and self-evaluations of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351-358.

Chang, S. J., Song, S. W. & Cho, M. N.(2011). The effect of mobile phone, dependency,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ttachment to peer on school life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2), 431-451.

Chang, S. K.(1998). Weight control practice, body Image, self esteem and depression according to weight perception of adolescent girls. Theses Collection, Semyung University, 7, 619-632.

Cho, J. S.(1992).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adolescent's body image. Physical attractiveness, the distortion of body im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Pusan.

Cho. Y. J.(2009). The effects of appearance stress on children and adolescents' self-esteem: Mediating variables of sex-role identity and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8), 87-99.

Cho. Y. S. & Lee. K. N.(2010). Effects of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family environment and

- school maladjustment on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8), 27-37.
- Choi, K. R.(2010).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parental communication, academic problems, and peer relationship on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7), 33-48.
- Conger, J. J. & Petersen, A.C.(1984). *Adolescence and youth*. N.Y.: Harper & Row.
- Do. K. H.(2008). The effects of children's self-esteem, eating attitude and school adjustment on body image.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1(3), 111-125.
- Enright, R. D., Lapsley, D. K., Drivas, A. E., Fehl, L. A.(1980) parental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autonomy and ident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529-545.
- Flores, L. Y & O'Brien, K. M.(2002). The career development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women: A test of social cognitive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14-27.
- Han. H. W.(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and mental health of female college students. *한국유산소운동과학회지*, 7(1), 61-72.
- Han. M. J.(2000). A study on the effects of processes of thin promoting TV messages on college females' body satisfaction and die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4(3), 291-317.
- Han. Y. S. & Kim. K. W.(2003). Study of communication between fathers and children and children's alienation. *아동연구*, 16(2), 29-48.
- Hwang. R. H.(2009). A study on eating disorder, body image and self-esteem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Nursing*, 15(4), 328-335.
- Im. C. H.(2007).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women employees' promoti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 *Korean Management Review*, 36(3), 597-621.
- Im. K. H.(2005). A feminist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perception of physical images on school adjustment among female adolescents in Korea. *Health and Social Science*, 17(6), 107-132.
- Jang H. S. & Kim. T. R.(2006). The effect of mass media on body perception and state esteem of body image. *Studies on Korean Youth*, 17(2), 57-83.
- Jang. S. C. & Song. M. H.(2004). Relationship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1(3), 115-133.
- Jeong, M. S.(2010). The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 on adolescent's self esteem, *Youth Culture Publishes Forum*, 25, 140-170.
- Kang, W. S. & Yoo, A. J.(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Father's/mother's values, father/mother - student emotional intimacy & father's/mother's over - control and university student's alien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8), 69-84.
- Kenistone, K.(1965). *The uncommitted: Alienation youth in American society* (3rd ed.). N. UY: A Delta Book.
- Kim, A. K.(2001). 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early adolescents relationships to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lf - esteem,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3), 271-285.
- Kim, G. S. & Jeon, Y. S.(2009). The influence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 differentiation on an adolescent's anxiety. *Journal of Korean Family Welfare*, 14(4), 79-94.
- Kim, H. J. & Sung, Y. H.(2006).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perceived family function and alienation. *아동연구*, 19(1), 59-75.
- Kim, I. S. & Yoo, Y. J.(1985). Communication between mother and her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 77-91.
- Kim, K. H.(2011). Impacts of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on perceived career barriers of high school students: A mediating effect of adolescents' alienation, *Journal of Youth Welfare*, 13(3), 191-213.
- Kim, O. N. & Kim, K. S.(1994). Communication and family stress between mother and adolesc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2(3), 105-119.
- Kim, S. I. & Kim, N. H.(2001). Relations of parental communication patterns perceived by adolescents to their ego-identity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Development*, 14(1), 75-89.
- Kim, S. I. & Kim, N. H.(2001). Social-emotional development : Relations of parental communication pa-

- tters perceived by adolescents to their ego-identity development.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4(1), 75-89.
- Kim, S. M. & Lee, K. O.(1994).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alienation and physical mental health in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3(2), 54-73.
- Kim, S. O.(1990). A study on parent-adolescent cohesion and the influences of family structure variables on i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8(1), 143-156.
- Kim, T. H. & Lee, Y. J.(2005).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function on self-esteem in adolescent.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hip*, 10(3), 173-193.
- Kong, I. S. & Lee, E. J. & Lee, J. L.(2005). Adolescents' conflict,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their self-concep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4(6), 925-936.
- Kuh, J. M. & Lee, M. H.(1994). A Study on the appearance satisfaction, sociality, and achievement motive of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2(5), 153-163.
- Lamb, M. E.(1997). *The role of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Y.: Wiley.
- Lee, C. S., Kweon, Y. R., Kim, S. J. & Choi, B. S.(2007). The Effect of suicide prevention program on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n middle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16(4), 337-347.
- Lee, H. & Kim, H.(2011). Current status and explanatory variables of eating problem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5), 413-433.
- Lee, K., Park, O. I. & Lee, K. J.(1994).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satisfaction with mother perceived by adolescents - Focused on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2(2), 16-25.
- Lee, Y. M. & Min, H. Y.(2009). Adolescents' sense of self-worth according to their body image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6(4), 79-94.
- Lee. E. S. & Kim. J. S.(2004). Correlation between alienation and health risk behaviors in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13(3), 265-272.
- Lee. E. S.(2004). The influencing factors on alien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4(1), 45-52.
- Lee. H. L. & Jang. M. Z. & Kim. S.M(2004). The Effect of friendship improvement program on the senses of alienation and social skills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1(3), 181-198.
- Lee. J. W. & Kim. K. W.(1989). Research: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styles and satisfaction between adolescents and mothers, perceived by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7(3), 147-159.
- Lee. K. Y. & Choi. S. C. & Kong. J. S.(2011). The effects of parents-children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nd academic stress on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6(2), 83-107.
- Lee. S. H.(2008). Capitalist body-aesthetics and self-identity. *철학연구*, 36, 271-303.
- Lee. Y. M.(2004). The effect of children's perception of body shape and body image on their negative emotion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8), 133-145.
- Lober, R. Lober, R. & Stouthamer-Loeber, M.(1988). Development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Luckmann, J. & Sorensen, K.C.(1974). *Medical-surgical Nursing*. W.B. Saunders Co.
- McCreay, D. R. & Sasse, D. K.(2000). An exploration of the drive for muscularity in adolescent boys and girl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8, 297-304.
- McWhiter, E.(1977). Perceived barriers to education and career: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124-140.
- Mendelson, B.K. & White, D.R.(1982). Development of self-body-esteem in overweight youngst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90-96.
- Min, H. Y. & Lee, Y. J. & Kim, K. H.(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alienation in single mother-headed family and two-parent family. *Journal of*

-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3), 15-23.
- Min, H. Y.(2008). The influence of income and emotional closeness with father/mother on middle and high school-adolescent's alien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7(6), 1105-1114.
- Min, H. Y., Lee, Y. J. & Lee, Y. M.(2004). College stud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5), 17-27.
- Moyer, T. R & Motta, R. W.(1982). Alienation and social adjustment among black and white adolescents. *Journal of Psychology*, 112, 21-28.
- Niels, F. S.(1981). The youth culture controversy: An evaluation.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3), 265-271.
- Park, E. A.(2003).Cross-cultural study of the effect of body-esteem to subjective well-being.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2(2), 35-56.
- Parkers, C. M.(1991). Attachment, bonding and psychiatric problems after bereavement in adult life. In Parkers, C. M., Stevenson, J. & Marris, C. M.(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268-292). London: Routledge.
- Patterson, G. R. & Dishion, T. J.(1985). Contribution of families and peers to delinquency. *Criminology*, 23, 63-79.
- Polce-Lynch, M., Myers, B. J., Kilmartin, C.Y T., Frossmann-Falck, R. & Kliewer, W.(1998). Gender and age patterns in emotional expression, body image, and self-esteem: A qualitative analysis, *Sex Roles*, 38, 1025-1048.
- Seeman M.(1972). Alienation and engagement. In A. Campbell & P. Converse (Eds.),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N.Y.: Russel Sage Basic Book.
- Shin, S. S. & You, Y. D.(2010). The effects of the quality and consistency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on the emotional and social maladjustments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4), 93-113.
- Song, I. H., Kwon, S. W., Chung, E. H. & Kim, L. J. (2011). Self-efficacy as a medi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bonding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8(2), 199-217.
- Song, S. H.(2010).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Self-concep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hysical Stress and Aggressive and Depressive Symtoms. *성결심리상담*, 3, 99-122.
- Torsheim, T. & World, B.(2001). School related stress, support, and subjective health complaints among early adolescence. *J. Adloesc*, 24, 701-713.
- Wynne, E.(1978). Behind the discipline problem: Youth suicide as a measure of alienation. *Phi Delta Kappa*, 59(January), 308-315.
- Yook, K. Y. & Yun, J. W. & Kim, K. H. & Suh, S. Y. & Park, J. H.(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image discrepan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14(4), 665-682.
- Yook, Y. S.(2008). Relationship among body image, eating disorder, and self-esteem in university female student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19(4), 105-115.
- Yoon, N. R. & Kim, Y. L.(2004). A study on youth's isolation feeling in our country and the direction of youth welfare policy. *Journal of Youth Welfare*, 6(2), 101-113.
- You, A. J. & Lee, J. S. & Kim, J. M.(2005). The impacts of body-image, attachment to parent and peers, and resilience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5).

접수일 : 2012년 05월 25일

심사일 : 2012년 06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7월 20일